제 7 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 1 절　아시아 및 대양주

1. 일 본

아주협력과 사무관 전제구

가. 한・일간 교역동향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경제관계는 무역·투자·산업기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 이 확대·심화되어 왔으며, 양국간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01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일본 경제불황의 심화로 수출이 165억불로 19.3% 감소, 수입이 266억불로 16.3% 감소하여 무역적자(통관기준)는 10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3억불 감소하였으나, ’02년에는 수출은 151억불로 8.3% 감소한 반면, 수입은 299억불로 12.1% 증가하여 무역적자 규모가 147억불로 확대되었다. ‘03년도에는 수출은 173억불로 14.1%증가, 수입은 363억불로 21.6%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190억불에 이르러 국교수립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일 무역적자는 핵심 기계류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기술수준의 격차 및 주요 수출상품의 대일 경쟁력에서의 열위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취약한 기계류 및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대일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산업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류 및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일본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확대, 그리고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일수출유망 품

목 및 수입대체 품목을 선정하여, 일본에 시장 개척단·수출촉진단을 파견하고, 박람회·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III-7-1〉 한·일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99	'00	'01	'02	'03
대일수출	15,862	20,466	16,506	15,143	17,276
(증가율)	(29.6)	(29.0)	(△19.3)	(△8.3)	(14.1)
대일수입	24,142	31,828	26,633	29,856	36,613
(증가율)	(40.6)	(31.8)	(△16.3)	(12.1)	(21.6)
대일수지	△8,280	△11,362	△10,127	△14,713	△19,037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03.12말일)
주 : 통관기준,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나. 한·일간 투자현황

일본의 대한 투자누계는 '62년부터 '03년까지 13,256백만불로 외국기업의 대한 직접투자(신고수리기준) 총액인 91,117백만불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02년에는 1,404백만불에 이르러 '01년도의 772백만불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03년에는 541백만불로 전년대비 61.5% 감소하였다. 이렇게 감소한 사유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장기불황에 따른 일본기업의 투자여력 감소, 대중국 투자의 증가 등에 있다.

정부는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계류 및 부품·소재분야에서 일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이미 진출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개최,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이 곤란한 첨단 부품·소재에 대해 일본 부품·

소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 부품·소재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Japan Desk"를 산자부 산하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설치하여 공장설립형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III-7-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98	'99	'00	'01	'02	'03
전 산 업	504	1,750	2,448	772	1,404	541
제 조 업	274	1,108	747	267	569	338

자료 : 산업자원부(총신고기준 : 2003년 12월말)

〈표 III-7-3〉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98	'99	'00	'01	'02	'03
건 수	17	33	121	114	73	62
금 액	23	48	61	94	59	5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총신고기준 : 2003년 12월말)

다. 한・일간 산업・기술협력 현황

한·일 산업협력은 부품·소재분야 협력, 전자상거래 및 IT협력, 지방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품·소재분야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협력 하에 투자환경조사단 유치, 부품·소재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등 사절단을 교환하고, 일본기업 전용 공단 설치, 노사문제 해결시스템의 개선 등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03년 10월에는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국내 대기업 관계자가 직접 관련산업 현황 및 구매관행 등을 소개하는 "대일 투자유치 및 상담회"를 동경에서 개최함으로써 4억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00년 9월 양국 정상간 합의한 "IT협력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e-Marketplace 구축 등 전자상거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한·일 산업협력의 세분화 및 지역간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지역간 경제협력 채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03년에는 제10차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제4차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환황해권 협력을 위한 제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도 개최되어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논의되었다.

한·일 양국은 '92년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각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각각 예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03년에는 기계·자동차·전기 등 주요 업종별로 산업기술협력단을 관련 협회주관으로 동경·오사카 등에 파견하고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분야 사절단 및 투자환경조사단 등을 유치하여 산업협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술자를 일본의 각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한편, 일본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3차례의 한일벤처플라자를 개최하여 한국벤처기업의 대일 진출을 지원하였고,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일 수출 촉진단을 2회에 걸쳐 동경과 주요 지방도시에 파견하였으며, 일본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우량상품특판전을 일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였다.

라. 21세기 한・일 통상관계

한일 양국은 '98.10월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공동선언하고, '99.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21", '00.9월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양국 정상간 합의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와 3차례에 걸친 KOREA SUPER EXPO 및 일·한 페스티벌(Japan Festival in Korea)의 성공적 개최는 양국 및 양국민간 이해와 우호·협력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03.1월 "한·일 투자협정(BIT)"일 발효되어 투자 개시전 단계부터 투자가에게 내국민·최혜국대우가 부여되게 됨은 물론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수준의 수출의무 등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 금지를 투자협정문에 규정하여 투자가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체결을 위해 '02.7월 구성되었던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그간 8차례의 회의를 갖고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 할 것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정부간 협상 제1차 회의가 '03.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국간 통상관계는 그 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점차 호혜적 동반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양국 경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역불균형은 근본적으로 한·일간의 산업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한국은 그 동안의 조립, 완성품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일본도 세계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글로벌소싱" 파트너를 한국에서 찾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자원부는 일본과의 진정한 동반자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이다.

2. 중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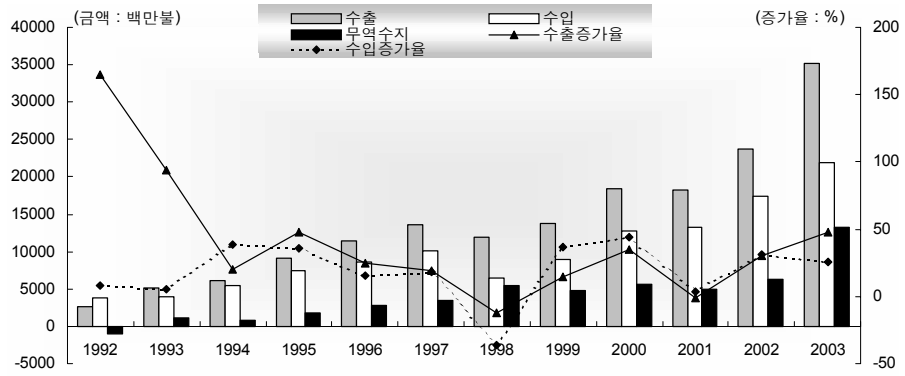
중국협력기획단 주무관 문영훈

가.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현황 및 통상 현안

한국과 중국간 교역관계는 92년 8월 수교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은 2003년 9월 미국을 제치고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 되었고, 수입에서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 시장으로 급성장 하였다. 1992년 수교당시 양국간 교역규모는 64억불로 당시 총교역액(1584억불)의 4%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교역규모 412억불로 총교역액(3,146억불)의 13.1%를 기록하였고. 2003년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47.8% 증가한 351억불, 대중 수입은 전년 대비 25.9% 증가한 219억불을 기록하며 총교역액(3,726억불)중 15.3%로 미국(590억불)에 이어 제2의 교역대상국(570억불)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향후 5년내 교역규모 1,000억불 달성을 위해 상호노력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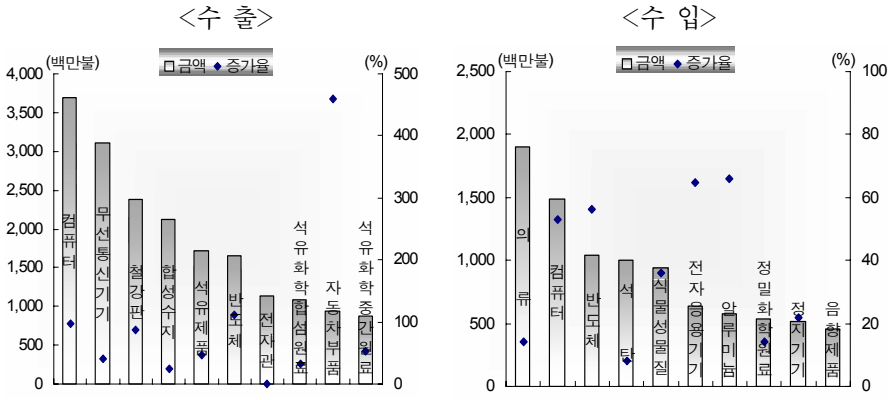
<그림 III-7-1> 연도별 교역추이



2003년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컴퓨터, 무선통신 기기,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반도체, 전자관, 석유화학합섬원료,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중간원료등 10대주력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03년 대중수출에 있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컴퓨터로서 전년대비 9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철강제품과 무선통신 기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6.4%, 40% 증가하여 주요수출상품으로 떠올랐다.

대중 주요수입품의 경우 농산물, 직물, 광물성 연료 등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섬유제품, 컴퓨터,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이 고부가가치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II-7-2>　　2003년 대중국 주요 품목별 교역현황



중국은 WTO가입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중인 품목은 냉연강판, 폴리에스테르필림, PVC, PET필름, 스테인레스 강판 등 14개 품목이며 조사중인 품목은 클로로포름, 광섬유, 수화하이드라진 3건이다.

⑵ 투자 및 투자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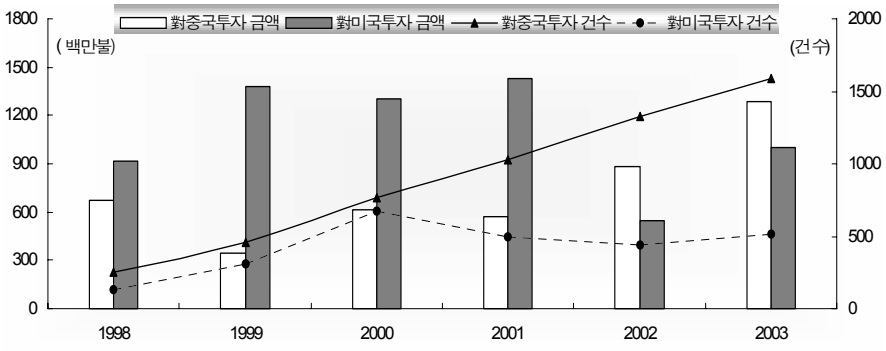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대 중국투자는 수교이전인 '91년까지 99건, 65백만 불에 불과하였으나, '92년 수교이후 날로 확대되어 2003연말 누계기준 9050건, 7,972백만 불로 중국은 투자건 수면에서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금액면에서 미국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2년 한국의 대중투자는 887백만불을 기록, 대미투자 544백만불을 상회하여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 대중투자는 1,288백만불로 최대투자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를 때 2003년 한국의 대중투자는 44.9억불(누계 196.9억불)로 미국을 제치고 홍콩·일본에 이어 제3위의 투자국이다.

이러한 대중국 직접투자는 그 동안 저가 노동력을 활용하여 현지생산품의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지역적으로

는 우리 나라와 근접해 있는 환발해만지역(산동성, 천지, 북경등)과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편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국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 집약적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투자지역도 동남연해지역(강소성, 상해시, 광동성등)을 비롯한 중국정부의 중점개발지역인 중서부내륙지역 등 중국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기업의 對韓투자는 누계기준으로 5.2억불에 불과하나 2003년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간 상호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2001년 BOE그룹의 Hynix 반도체 인수 등 양국간 호혜적 투자기반의 확대가 조성되고 있다.

<그림 III-7-3> 연도별 대중국·대미국 투자현황



지난 2000년 10월 주용기 중국총리 방한시 김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한중간 투자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간 공식채널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의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현 상무부 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양국의 관계부처·단체·업계 및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여 중국내 한국진출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참여 등을 협의하는 양국간 투자관련 최고위 협의채널이다.

02.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은 상호 투자협력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투자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및 민관 합동의 투자설명회 상호개최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한중 중소기업협력센터'설치 추진에 동의하였다. 중국 광동성 LNG 인수기지건설, 북경-상해간 고속철도건설, 고양시 차이나타운 건립 등에 대해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중국 측의 신산업분야와 중·서부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확대 요청 등에 대해 상호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는 03.7월 북경에서 개최되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자원개발사업, 서부대개발사업등 10대 경협사업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의 이행방안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회의에서 양국은 상호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인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양국간 협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전력사업·자원개발사업등에 대한 협력방안과 중국이 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⑶ 산업협력 추진현황

한·중간의 산업협력은 '94년 3월 북경정상회담에서 자동차부품, HDTV, 전전자교환기(ATM), 항공기 등 4개 협력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같은 해 6월 산업자원부장관(舊 통상산업부장관)과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現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중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목표로 협력사업을 추진시켜 왔다.

이후 '99.11월 북경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하여 개최된 제4차 한중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협력범위의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전개를 위하여 한중산업협력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산업화분과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분과위, 산업정책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산업화분과

위원회 산하에 자동차 부품, HDTV, 전전자교환기(ATM) 등 3개 품목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제5차 한중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철강소위원회 및 석유화학소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전전자교환기(ATM) 소위원회를 한중통신장관회담으로 이관키로 합의하여 총 4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02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3개 분과위원회 별 추진사업을 의결하고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확대를 합의하였다. 우선 과학기술산업화분과위에서는 자동차부품소위를 자동차소위로 확대 개편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새로운 협력과제로서 디지털 데이터 방송기술 협력 및 생물산업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자원환경분과위에서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책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섬서성 항래만 유연탄광개발, 내몽고지역 희토류 자원 개발,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정책분과위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 전자무역 분야, 산업집적지간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과제로 한·중·일 동북아 표준협력체 구성과 한·중 유통산업협력 확대, 금속가공기술분야 공동연구사업 수행, 양국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결과해결방안 모색 등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7차 한중산업협력위원회는 2004년 하반기경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나. 향후 협력방향

⑴ 교역의 확대 균형 및 통상마찰 완화

수입규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석유화학협의회('04.9월), 민관 철강협의회('04.10월)개최 및 사절단을 파견하여 적극대응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정례 협의회를 통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중국 측 반덤핑 조사단의 국내기업 실사시 업체방문을 동행 우리정부의 협조적인 태도표명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며, 旣구성('02.1)된 무역, 산업협력 대책반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대책반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동영상

으로 제작, 각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중국 Portal Site('03.12, 무역협회 구축)를 통해 입찰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할 것이다.

⑵ 대중국 전략적 투자 촉진

제3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금년 3/4분기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양국간 상호 투자확대, 상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신강, 서장지역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하고 동북지역(요녕, 길림, 흑룡강) 노후공업기지 재건계획의 중장기적인 참여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중 투자무역상담회 개최 및 중국 샤먼(廈門)투자무역박람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기업의 對韓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해외투자장려정책("走出去"정책)에 부합하는 유망 투자유치 분야를 적극 발굴해나가고 또 제8차 世界華商大會('05년, 서울) 추진체계 구성을 지원하여 세계화교자본의 對韓투자유치 확대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보호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지원하고, 대중국 투자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업종별, 유형별로 DB화하여 중국 진출(예정)기업에 전파함으로써, 대중국 진출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대중투자전략수립을 지원할 것이다.

⑶ 상생적 산업·기술 협력 증진

2004년 3월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개최를 위한 양국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체제개편 및 분과위·소위별 양국주관부서를 확정하고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치협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2004년 하반기 서울에서 제7차 산업협력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 그간 양국간 산업협력은 자동차, 철강 등 기간산업 분야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으나, 동 분야의 협력은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통상마찰 협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으로는 IT, BT, NT 등 산업협력 초기단계인 新산업분야로 협력범위가 확대될 전망으로 정부간 협력을 통해 민간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공동기술개발, 합작생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WTO 가입 이후 개방일정에 따른 중국의 유통, 물류시장 진출장벽이 완화에 따라 양국간 유통·물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중 유통·물류시장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정체되어 있던 양국간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한·중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한·중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에 있다.

2003년 중국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통일바코드 편성규칙”, “강제성인증제도(CCC)" 등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어 동 제도들이 양국간 비관세 장벽으로 운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정상회담 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간 “한·중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2004년 하반기 서울에서 제1차 한·중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공동위원회(차관급)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국의 원부자재 수요 급증 여파로 한국의 원부자재 수급이 애로를 겪게됨에 따라 금년에는 양국간 중장기적 자원·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원전 건설에 한국 표준형원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중에 있으며, 하남성 무척현 석탄유동성발전소 합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한국의 전력기술이 중국의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호혜적(Win-Win)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유연탄 수출억제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유연탄 수급 애로해소를 위해 산동성 거야탄광, 흑룡강성 조산탄광 등 신규 유연탄 공급원 개발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파견(9월, 新疆, 西藏자치구 등)하여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가속화하고 신규 에너지 공급원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3. 동남아(ASEAN)

아주협력과 사무관 김용태

가. 경제개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동남아 10개국을 포괄하는 지역공동체로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통합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는 인구 5.3억, 5천억불 이상의 GDP, 약 7천억불의 연간교역량, 4%대의 연평균성장률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다. 특히 2002년 본격 출범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는 경제통합의 가속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등 새로운 역내 경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에 의하면 동남아 경제는 '02년 4.1% 성장에 이어 '03년에 3.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04년도에도 4.9%대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1) 교역현황

대 아세안 교역은 '92년의 161억불에서 '03년에는 387억불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교역중 10.4%를 점유함으로써, 미국·일본·중국·EU에 이은 우리 나라의 5대 교역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대 아세안 수출은 '02년 11.8% 증가에 이어, '03년 10.1% 증가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전형적인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늘어나면서 아세안의 완제품 조립산업에 우리나라의 중간재 또는 원부자재 공급이 증가했다.

〈표 III-7-4〉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추이

(단위 : 백만불, %)

연 도	총 수 출		대아세안 수출		구성비
	(A)	증가율	(B)	증가율	(B/A)
1993	82,236	7.3	10,068	11.7	12.2
1994	96,013	16.8	12,431	23.5	13.0
1995	125,058	30.3	17,979	44.6	14.4
1996	129,715	3.7	20,311	13.0	15.7
1997	136,164	5.0	20,365	0.3	14.9
1998	132,313	△2.8	15,328	△24.8	11.5
1999	143,685	8.6	17,708	15.5	12.3
2000	172,268	19.9	20,134	13.7	11.7
2001	150,439	△12.7	16,459	△18.3	10.9
2002	162,126	8.0	18,400	11.8	11.3
2003	193,817	19.3	20,254	10.1	10.5

〈표 III-7-5〉 한국의 대 아세안 수입추이

(단위 : 백만불, %)

연 도	총 수 입		대아세안 수입		구성비
	(A)	증가율	(B)	증가율	(B/A)
1993	83,800	2.5	7,295	2.6	8.7
1994	102,348	22.1	7,836	7.42	7.7
1995	135,119	32.0	10,137	29.4	7.5
1996	150,339	11.3	12,074	19.1	8.0
1997	144,616	△3.8	12,549	3.9	8.7
1998	93,282	△35.5	9,135	△27.2	9.8
1999	119,752	28.4	12,249	34.1	10.2
2000	160,481	34.0	18,173	48.4	11.3
2001	141,098	△12.1	15,916	△12.4	11.3
2002	152,126	7.8	16,757	5.3	11.0
2003	178,827	17.6	18,458	10.2	10.3

⑵ 합작투자현황

‘03년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대아세안투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

남에 집중되어 있고, 아세안으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폴로부터 집중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대아세안 투자는 2003.12월말 현재 3,101건 10,703백만불(총신고 누계기준)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볼 때 아직까지 절대건수로는 의류, 섬유·가죽제품 등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시설이전형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전자, 기계설비, 조립금속 부문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아국의 대 아세안 투자는 초기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초기단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요한 배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다.

〈표 III-7-6〉 한국의 대 아세안지역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부르나이	미얀마	10개국 총 계
건수	703	542	336	865	322	179	17	70	6	61	3,101
금액	4,280	2,444	727	1,021	839	1,065	82	104	4	137	10,70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총신고 누계기준, 2003.12월말)

〈표 III-7-7〉 아세안의 대한국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싱가포르	부르나이	7개국 총 계
건 수	29	15	567	26	28	453	6	1,124
금 액	15	0.7	6,494	36	7	2,730	9	9,292

자료 : 산자부(총신고 누계기준, 2003.12월말)

다. 통상진흥활동 기본방향 및 계획

⑴ 기본방향

아세안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고자 대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아세안은 교역 및 투자 다변화의 주요대상인 동시에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요 동반자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향후 대 아세안 통상활동의 기본방향은 단순한 상품의 교역에서 벗어나 합작투자확대를 통해 기술·자본협력의 활성화를 기하고 EDCF 자금지원의 확대, 한·아세안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이들 국가의 인적자본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아세안 경제성장의 동반자로서 호혜적 통상협력의 확대균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⑵ 향후 대아세안 교역확대를 위한 통상진흥활동 계획

아세안 국가에 대한 통상 진흥활동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의 산업인력 개발을 위해 '98년부터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아세안 국가의 시험인증기술자 및 공무원을 초청하여 시험인증 분야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주관으로 태국, 말련, 베트남, 인니 등 아세안국가 중소기업인 총 80여명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인 초청연수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에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III-7-8> 대아세안 통상진흥활동 계획

방 향	실 천 방 안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 양자간 통상협력채널(산업장관회담. 실무회담, 각급 면담기회 등) 및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용 ○ 다자간 통상채널(WTO, APEC 등) 활용
ASEAN 단일시장 대비	○ ASEAN 역내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와 FTA 추진 ○ ASEAN과의 FTA 본격 추진
투자진출 패턴의 선진화	○ 노동집약 산업 진출에서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 필요 ○ 제조업 일변도에서 SOC, 서비스·유통업 등으로 다양화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별로 경제수준, 소득규모, 시장특성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한 마케팅 활동 유도 및 시장개척단 파견 ○ 역내 70%이상의 경제력을 장악한 화상(華商) 네트워크 활용 ○ 한류열풍의 활용

4. 서남아

아주협력과 주무관 정은영

가. 경제개관

서남아 주요 4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경제는 엄청난 인구규모(2001년 약 13억)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력과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구조, 폭발적인 인구증가, 비능률적인 정치 및 사회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 방글라데시의 여야대립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외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종 규제완화 및 무역자유화 미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지역 국가들은 1970년대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2001/02 회계년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 5.6%, 파카스탄 3.6%, 방글라데시 4.8%의 성장으로 개도국 평균 성장률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도는 03/04년도 GDP 성장률을 7.5-8%로 예측하는 등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 시장이 최근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경제 중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2025년경에는 인도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남아시아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2003년도 우리의 서남아에 대한 교역현황은 수출이 41.3억불, 수입은 15.2억불로서 총교역규모는 56.5억불(2002년 동기대비 약 26.1%정도 증가)이며, 이 지역 국가와의 주요 교역품목은 섬유·의류,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02년 현재 인도에 157개, 스리랑카에 120개, 방글라데시에 59개, 파키스탄에 4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다.

서남아시아지역은 아직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거대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서남아지역은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활동과 연계된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인도 등의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수주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으로 전자·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앞서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 등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반덤핑제소), 고질적인 SOC 부족 문제, 정부의 재정악화 등이 한-서남아 교역·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표 III-7-9〉 한국의 대 서남아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 도	1,668	606	1,362	768	1,326	985	1,408	1,106	1,384	1,249	2,853	1,233
파키스탄	344	150	338	211	404	263	355	320	405	267	447	231
방글라데시	501	10	509	13	626	22	655	28	506	22	544	29
스리랑카	409	73	370	61	380	58	335	41	305	39	287	31
합 계	2,922	839	2,579	1,053	2,736	1,328	2,753	1,495	2,600	1,577	4,131	1,524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

〈표 III-7-10〉 한국의 대 서남아지역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계	인 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건 수	362	113	12	116	121
금 액	1,057	729	20	156	15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총투자기준, 2003.12월말까지 누계)

다. 진출방안

서남아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잠재력이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한 진출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가로서의 인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는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이 용이해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동 지역 국가들의 외환사정 및 동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등을 감안, 남남협력차원의 통상진흥활동이 요청된다.

정부는 인도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교섭활동을 강화하고, 기계설비 및 플랜트 수출·전력·도로·항만·석유화학 등 프로젝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남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작년 1차로 발족된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한 예로 하여 향후 민·관 협력채널 공고화, 정부간 인사교류 확대 등 대 서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우리기업 참여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토록 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5. 대양주

아주협력과 사무관 신지현

가. 개 관

인구 2천만명, 1인당 GDP 14,000~20,000불의 선진국형 성숙시장인 대양주는 고가품 시장의 경우 브랜드 지명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저가품 시장은 수입산 범람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비슷한 역사, 문화, 인종적 공통점을 보유한 인접국으로서 1983년 CER(Closer Economic Relations)의 발효로 단일시장이 형성되었다.

'02년도에 2.8% 성장한 호주 경제는 '03년도에 3.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04년도에도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는 '02년도 4.3%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03년에는 국내외 부정적인 변수가 많아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성장전망이 2.2%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호주는 전통적인 우방으로 최근 경제, 통상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원위주의 교역관계에서 벗어나 교역품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호주의 우수한 기초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기술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나. 교역 및 투자 확대

한·호간 교역규모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02년에는 10여년 전인 '90년에 비해 2.2배로 증가한 83억불에 달하였다. '03년 한국의 호주에 대한 수출은 32억불로 전년대비 3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품목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컬러 TV 등이다. '03년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주요 원자재의 수입감소로 전년보다 1.2% 감소한 57억불이었는데 유연탄, 원유, 금, 철광, 알미늄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03년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호주는 한국의 8위 교역대상국이다. 한국과 호주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비해 투자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나 최근 한국의 대호주 투자가 자원 및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석탄개발 및 1차산품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03.12월말 현재 총신고 누계기준으로 한국의 對 호주투자는 272건 2,638백만불이고, 호주의 對韓 투자는 169건 518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표 III-7-11〉 대 호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00	증가율	'01	증가율	'02	증가율	'03 (1-11)	증가율
수 출	2,606	7.4	2,173	-17.0	2,340	7.7	3,272	39.9
수 입	5,958	27.5	5,534	-7.1	5,972	7.9	5,916	-1.0
무역수지	-3,352		-3,361		-3,634		-2,644	

한국과 뉴질랜드간 교역은 1990년 5.8억불에서 2002년에는 11억불로 10여년 사이 그 규모가 2배 정도 증가하였다. '03년중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34.3% 증가한 433백만불, 수입은 6.0% 감소한 70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뉴질랜드에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목재, 피혁 기타 석유화학제품, 가죽, 축산가공품, 육류 등 원자재와 1차 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양국간 투자규모는 협력잠재력에 비해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의 對 뉴질랜드 투자는 수산업과 목재가구, 피혁 등 1차산업 관련 제조업분야에 치우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의 對韓 투자는 치즈가공, 전자 및 무역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03.12월말 현재 총신고 누계기준으로 한국의 對 뉴질랜드 투자는 205건 177백만불, 뉴질랜드의 對韓 투자는 36건 18,987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다. 산업기술 및 에너지·자원 협력

'00.12월에는 산업자원부와 호주의 산업과학자원부(ISR)간에 기술공동개발 Pilot Fund설치 약정을 채택함으로써 2001~2003년 3개년간 각각 75만 호주불씩 재원을 조성하여 민간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용 가스엔진의 디지털 제어기”와 “나노분말 연마슬러리 개발” 등이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 3년의 시험운용이 끝났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한국과 호주 양국은 공동기술개발 Fund의 정식설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호주는 아국의 자원개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양국간에는 자원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02년에 제19차 회의를 호주 퍼스에서 개최하였고 ‘04년 2월에는 제20차 회의를 한국 광양에서 개최하였다. 제20차 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한·호주자원협력약정 체결 추진, 대체에너지 산업분야 협력 강화, 석유·가스 및 일반광 분야 협력 확대, APEC 등 국제협력 공조 강화가 협의되었다.

한편, 뉴질랜드와의 산업기술협력의 활성화도 모색되고 있다. ’99.9 김대중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다. ’00.7월 산업자원부는 뉴질랜드 산업기술조사단을 파견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 등 우수한 뉴질랜드 기술을 조사한 바 있으며, ’00.11 서울에서 개최된 Techno Mart에 뉴질랜드에서 6개의 우수업체가 참여하기도 하였다.

라. 통상 현안

호주측은 LNG와 유연탄 등 자국 지하자원의 우리나라 시장접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측은 섬유류·의류·신발류(TCF; Textile-Cloth-Footwear)등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ACIS(Automotiv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System) 제도개선, 반덤핑조치의 신중한 운영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호주의 대한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03.12월 현재 발포성폴리스틸렌, 폴리스틸렌수지, PVC, 열연형강, 폴리올,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 세탁기 등 8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동관은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을 제의한 상태이다. 이외에 열연후판에 대한 덤핑조사가 진행중이다. 뉴질랜드는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 03.12월현재 반덤핑관세를 부과중이다.

마. 통상협력의 확대

'99.9 김대중 대통령의 방호에 이어 '00.5 하워드 총리이 방한하였으며, 제3차 각료급 경제통상공동위(서울, '02. 4), 제19차 자원협력위원회(호주, '02.7), 제24차 민간경협위(서울, '02.9), 하워드 총리방한('03. 9) 등 호주와의 다양한 협력채널이 활발히 운영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통상협력 채널을 통하여 호주와의 안정적 자원공급 및 시장진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자부분에서도 APEC, OECD, WTO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양국은 통상장관회담,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99년 9월에는 양국간 정상회의와 산업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03.10월 제6차 경제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03.10월 서울에서 20차 한·뉴질랜드민간경협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2절 미 주

1. 미 국

미주협력과 사무관 고상미

가. 미국경제동향

2002년 2.2%의 경제성장을 보인 이래, 2003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미국 경제는 적신호를 보여왔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제를 견인해온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 및 고용 기피로 실업률은 악화 일로를 달려왔다.

그러나, 2003년 3/4분기 중 1984년 이래 최고 수준인 8.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경기회복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4/4분기에도 4.0%의 지속적인 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Conference Board는 미국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순익증가, 실업률 감소 등으로 인해 2004년 미국 경제가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4.6%로 전망)

다만, 2003년도에 GDP의 4-5% 수준에 달한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

정적자, 무역적자)가 2004년도에는 각각 5,0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율 및 세금인상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 한-미 교역동향

한·미 총 교역규모는 1999년 544억불, 2000년 669억불을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미국의 경기침체 및 9.11 테러사태로 인해 2001년 536억불로 감소한 이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2003년 590억불 기록). 그러나 대미무역수지는 1998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1999년 46억불, 2001년 88억불, 2003년 94억불 등 흑자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342억불,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248억불을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대미 수출비중: 21.8('00)→20.2('02)→17.6('03), 대미 수입비중: 18.2('00)→15.1('02)→13.9('03)), 이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및 IT 산업의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 최근 급격한 수출입 증가율을 보이면서('03년도 對중국 수출 증가율 47.8%, 수입 증가율 25.9%) 우리 나라의 제 2위 교역 상대국으로 뛰어오른 중국의 급부상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1993년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서 중공업 및 첨단제품 위주로 변화되었다. 자동차(24.1%), 무선통신기기(15.8%), 반도체(10.0%), 컴퓨터(6.2%), 섬유제품(5.9%) 등 5대 품목이 대미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미 수입에서는 반도체(21.3%), 화공품(16.9%) 등 기술집약적 공산품과 농수산물(12.1%)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7-12〉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단위 : 억불, %)

구분	2000			2001			2002			2003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전체	대미	비중
수출	1723	376	21.8	1504	312	20.7	1625	327	20.2	1938	342	17.6
수입	1605	292	18.2	1411	224	15.9	1521	230	15.1	1788	248	13.9
수지	118	84		93	88		103	98		150	94	

다. 한·미 투자현황

우리 나라의 대미투자는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2년 421건, 487백만불로 2001년에 비해 65.5%가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516건, 1,001백만불을 기록하여 83.7%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62년 이후 누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는 3,401건 9,126백만불(전체 해외투자 중 2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1995년 이후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IT 분야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의 투자부진으로 2000년에 비해 투자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증가로 인하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2년까지 對韓투자 최대국의 위치를 유지하였다(2002년 488건, 4,500백만불). 다만, 미국 경제 침체 등으로 2003년 들어 72.4%의 급격한 대한 투자 감소세를 보였으나,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및 2004년도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따라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한·미 통상관계

⑴ 개 관

한·미 통상관계는 1998년 10월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 이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미 흑자가 확대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전통산업(철강, 자동차 등)과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큰 산업(농산물,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통신분야 표준제정 및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 내 대선 및 상하원 선거 등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아, 2004년도에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⑵ 철 강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금융위기 기간인 1998년에 원화 평가절하와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철강수요감소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은 급증하였다.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철강 수입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로 대응하여 왔는데, 이러한 철강산업 보호 조치에서 한국도 거의 예외 없이 수입규제의 대상이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실제로 부과한 반덤핑 건수는 총 37건이며, 이중 철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부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하였고, 2002년 3월 미 정부는 14개 품목에 대해 3년간 8-30%의 고율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를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2년 3월 20일 EU, 일본 등 8개국 공동으로 WTO에 제소하였고, 2003년 11월 WTO는 미측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철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OECD 철강 고위급 회담 및 철강 보조금협정 마련 등 다자적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철강 부문에서 추가적인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⑶ 자동차

최근 대미 자동차 수입은 증가(2002년 72%, 4.5%)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미 양국간 자동차 교역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시장인 바 2002년 63만대, 2003년 72만대를 수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입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2002년 3,922대, 2003년 4,097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수출입 불균형은 한미 양국간 주요 통상마찰의 근원이 되어 왔으나, 19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미국측도 한국의 수입시장 확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미 자동차 교역불균형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세인하, 배기량별 기준세제 개편,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식개선, 표준 및 인증제도의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⑷ 반도체

미국은 Hynix 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그 동안 한국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WTO 보조금 협정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Hynix 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이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산 DRAM에 의한 산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2002년 11월 1일 미국의 Micron사는 한국의 DRAM 제조업체인 Hynix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한 바, 미 상무부 및 ITC의 최종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2003년 8월 Hynix에 44.29%의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상무부 및 ITC의 판정 결과를 WTO에 제소(2003년 6월)하고, 미국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미 정부 결정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해왔다. 올해 1월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에 있을 연례 재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측에 동 조치의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2. 캐나다

미주협력과 사무관 고상미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 역

우리 나라와 캐나다간의 교역은 1996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00년 총 교역규모가 1999년 대비 45%증가한 4,53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2001년에는 3,857백만달러로 15%의 감소를 보였으나, 2002년 15.0%의 對캐나다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다. 캐나다는 한국의 제16대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캐나다의 제7대 교역대상국이다. 캐나다는 종이제품과 농산물을 비롯한 1차 산품과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한국은 수송기계, 산업용 전자, 섬유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2001년 중 2,036백만불로 전년대비 16.1%감소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1,821억불로 전년대비 13.6%의 감소를 보였다. 2002년 수출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2,341백만불, 수입이 전년대비 1.3% 증가한 1,846백만불로 495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무역수지는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2000년에 이어 4년 내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총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무선통신기기, 의류, 컴퓨터 등이며 수입 품목은 제지원료, 석탄, 유선통신기기, 알루미늄이 총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7-13〉 연도별 대카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 가 율
수 출	1,638	5.6	2,427	48.1	2,036	-16.1	2,341	15.0	2,682	14.6
수 입	1,793	-9.2	2,108	17.6	1,821	-13.6	1,846	1.3	1,860	0.8
무역 수지	-154		319		214		495		822	

⑵ 투 자

우리 나라의 대캐나다 투자는 2003년 누계기준으로 176건 386백만불이며, 전체해외투자금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는 캐나다의 천연자원과 발달된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주로 제조업 및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캐나다는 한국의 7대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97년 이후 캐나다의 대한 투자는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캐나다의 對韓 투자는 2003년 누계기준으로 298건 2,993백만불이며, 이는 우리의 전체 외국인투자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나. 통상・산업협력 확대방안

한국과 캐나다는 1993.11.20 제1차 시애틀 APEC정상회의시 Special Partnership(특별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회의, 산업기술협력위원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진행중이다. 특히, 2003년 9월에는 제11차 한·카 특별동반자관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통상·투자 및 협력사업 문제를 논의하고 1999년 2차 회의 이후 중단되어 있던 한·카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재개를 제안하였다.

캐나다 수출의 80%가 대미 수출이 될 정도로 캐나다와 미국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한 시장개척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조성된 상호이해가 전자상거래 민간협력, 기후변화협약 공동이행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03년에는 한-카 수교 40주년, 주한 캐나다 대사관 수립 30주년을 맞아 투자·통상 사절단 교환 및 각국 대사관 행사 등이 개최되어 양국간 산업·경제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BT, IT, NT, ET 등 첨단산업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양국간 기술이전 및 산업협력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캐나다측의 국립연구평의회(NRC), 알버타대학내 나노연구소 등이 우리나라와의 과학기술 및 기업간 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중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중인 자동차부품시장개척단 교환방문, BT·IT관련 중소기업사절단 상호방문 행사를 비롯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남미

미주협력과 사무관 김영윤

가. 경제동향 및 전망

중남미는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성·성장가능성·개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평가된다. 총 GDP 2조 달러, 5억명의 인구, 4000달러의 1인당 GDP, 연 10%이상의 수출입증가율, 연 20%이상의 FDI증가율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FTAA 체결시 인구 8억명의 GDP 12조 달러, 교역규모 2조 7000억달러의 세계 최대무역 블록 탄생이 예상된다.

2004년 중남미 경제는 역내 경제의 안정세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1997년 이래 저성장세를 벗어나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간 통화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2004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 정치불안과 총파업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큰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브라질은 2003년 1월 룰라 루이스 실바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3년 하반기 1.4%수준의 성장에 이어 2004년 4%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경제의 경우 2003년에는 1.6%의 성장에 그쳤지만, 2004년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3%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국가중 가장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칠레의 경우도 3~4%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중남미 경제는 과거와는 달리 꾸준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Lost Decade로 표현되는 정치경제적 시련을 겪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안정화 및 구조조정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중남미경제의 안정화 경향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세계화·지역화 조류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남미지역 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은 자유화·개방화·규제완화로 대표될 수 있는 경제발전전략의 변환이라 할 수 있다. 무역과 금융·자본·외환시장을 자유화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은 小지역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활발한 역내 경제통합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남미 남부공동시장(MERCOSUR)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적인 결과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라는 새로운 무역질서 결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내통합 외에도 역외 국가 또는 경제블록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지역국가들은 유럽연합(EU)·미국·일본·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교역증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부상이다. 2002년 중국의 WTO가입이후 중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은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고 이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기회적인 요인이 되기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對 중남미 시장접근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효자시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단순한 수출중심의 중남미 교역관계에서 벗어나 향후 자원, 기술이전, 현지 합작투자 및 미주지역의 교두보 확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접근과 다각적인 시장개척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칠레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협력 채널의 활성화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무역·투자 현황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시장이다. 우리 나라 무역수지흑자의 지역별 분포상 對중남미 수출시장관리는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다. 2003년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對중남미 수출액은 88.6억불 (총수출액의 4.5%), 수입액은 45.9억불(총수입액의 2.5%)이나 무역수지는 42.7억불로 총무역흑자액의 28.4%를 차지한다.

그러나 1997년을 기점으로 중남미지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중남미 시장 진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27.3% 증가하여 동기간 우리 나라의 총수출 증가율 12.2% 및 중남미 총수입시장 성장률 16%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0년까지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2.6%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이 급성장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남미국가들의 개방정책 및 경제성장에 따라 중남미 수입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주력 수출업종이 우수한 국가 이미지와 홍보전략을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다. 셋째,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진출로 인해 시설재 및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1997년 이후 수출이 위축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후반 들어 신흥시장 경제의 위축 및 수입규제가 빈발하였다. 둘째, 중남미 역내 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이다. 셋째,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많이 저하되었고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 감축에 따른 판매전략이 위축되어 과거와 같은 공격적 시장진출이 어려워졌다. 넷째, 우리 기업의 對중남미 투자 감소이다.

〈표 III-7-14〉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전 체	65,016 (4.2)	136,164 (5.0)	132,313 (-2.8)	143,685 (8.6)	172,268 (19.9)	150,439 (-12.7)	162,471 (8.0)	193,817 (-0.7)
	중남미	2,102 (20.9)	8,668 (-3.3)	8,867 (2.3)	8,645 (-2.5)	9,369 (8.4)	9,706 (3.8)	8,864 (-8.9)	8,801 (-0.7)
	비 중	3.2	6.4	6.7	6.0	5.4	6.4	5.4	4.5
수입	전 체	69,844 (13.6)	144,616 (-3.8)	93,282 (-35.5)	119,752 (28.4)	160,481 (34.0)	141,098 (-12.1)	152,126 (7.8)	178,826 (17.6)
	중남미	1,726 (11.8)	4,076 (-7.2)	2,197 (-46.1)	2,865 (30.4)	3,263 (13.9)	3,411 (5.6)	3,743 (8.6)	4,594 (22.8)
	비 중	2.5	2.8	2.4	2.4	2.0	2.4	2.5	2.5
무역 수지	전 체	-4828	-8542	39,031	23,933	11,786	9,341	10,345	14,990
	중남미	376	4,592	6,670	5,780	6,106	6,295	5,121	4,207

〈표 III-7-15〉 한국의 對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81~90	91~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對중남미	149	172	256	259	207	167	84	190	270	347
전 세 계	2,738	5,896	4,249	3,230	3,895	2,549	3,692	6,240	5,060	6,596
비 중	5.4	2.9	6.0	8.0	5.3	6.6	2.3	3.05	5.3	5.2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수출부진의 저변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데 이를 對중남미 수출의 특성에서 도출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對중남미 수출은 완제품 위주의 수출인데, 완제품 위주의 수출은 최근 불황에 따른 수입규제조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출품목의 주종상품 집중현상으로서, 이는 국제가격의 등락이나 수입시장의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낳는다. 셋째, 무역과 투자가 중남미국가 중에서도 주요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우리의 수출이 각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의 변

화와 거시경제적 변동에 크게 취약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1990년대 중반이후 중남미시장은 경제성장, 공기업민영화 및 지역경제통합 추세에 힘입은 각종 인프라사업 확대로 플랜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관련업체의 우수한 잠재력을 수출실적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 방안

최근 중남미 지역에는 지난 10여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에 대한 반발과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에의 발생, 중남미의 맹주격인 브라질에서의 좌파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 등의 여파로 인해 보호주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득세할 전망이다. 이들 정부는 직접적인 관세인상은 선택하지 않겠지만,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초점이 국내산업보호와 역내통합강화를 통한 역외차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통상교섭채널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협력사업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중남미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수출·입금융의 애로의 지속적인 해결과 함께, 우리 업계의 중남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산업협력위원회 등 중남미국가와의 산업협력 채널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남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중남미 플랜트시장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나라 총 플랜트 수주금액의 13.2%를 차지했으며, 대규모 플랜트 사업이 다수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중남미지역의 중남미국가들은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탈피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중공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투자는 현지 산업정책에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산업내교역(intra-industry trade) 활성화와 내수시장 및 역내교역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중남미의 중대형 플랜트 참여를 위해서는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이 필수적이다. IDB의 연간 프로젝트 발주규모는 200억 달러 규모인데, 비회원국의 IDB 발주프로젝트 입찰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플랜트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DB가

입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브라질 기획예산부 Fiocca차관보의 내한 시 개최한 브라질 투자설명회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다. 아울러 중남미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남미 국가들에서의 한국 기업 및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중남미 사회발전(인프라, 빈곤퇴치, 및 개발협력이슈)의 참여를 비롯 중남미 지역의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과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및 문화교류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자협상에의 지속적인 참여와 함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 및 기타 중남미 거점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을 성사시켜 안정적인 시장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의 체결에도 노력하여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되고 2004. 4. 1 발효되었다. FTA는 수출촉진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의 자유무역기조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으로서도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칠레 FTA 협상 타결 결과,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對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칠레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칠레와의 FTA 협정 비준이후 그동안 멕시코 업계에 따른 영향으로 보류상태였던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재개도 모색할 전망이다. 정부의 통상기반 강화와 업계의 역내 거점시장 개발을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제도·규범면에서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남미 주요 거점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거

점국가들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제 3 절 구주 및 중동·아프리카

1. E U

구아협력과 사무관 하윤진

가. 2003년도 EU 경제동향

'02.12월,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동구권 10개국의 EU가입을 합의함으로써 유럽단일시장을 향한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될 EU확대가 완결되면 EU는 25개국, 인구 4억 5천만명, GDP 8조 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EU는 남미, 지중해 연안 및 북아프리카 등의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FTA를 추진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기술 등 21세기를 주도할 신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회원국과의 산업기술협력 확대가 절실하며 또한 미국과 함께 주요 투자유치대상인 바 향후 동북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EU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일이 핵심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⑴ 교역 동향

'03년도 한·EU간 교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4.1%가 증가한 443억불을 기록하면서 '01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전체 우리나라 교역의 11.3%를 차지하여 EU는 우리의 제4의 교

역상대방이자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98년이래 지속적인 흑자로서 '98년에 72억불, '99년에 76억불, '00년 76억불, '01년 47억불, '02년 46억불, '03년 5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對EU 주요수출품목은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선박, 반도체 등이며 對EU 주요수입품목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자동차, 계측제어 분석기, 농약 및 의약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⑵ 투자 현황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해외투자여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對EU투자도 '00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01년 들어 LG전자와 필립스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투자액 증가로 인하여 對EU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III-7-16〉 한·EU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연 도	교역규모(증감율)	수출(증감율)	수입(증감율)	수 지
'93	19,585 (4.1)	9,415 (2.0)	10,170 (6.1)	△755
'94	23,853 (21.8)	10,616 (12.8)	13,237 (30.2)	△2,621
'95	34,493 (44.6)	16,302 (53.6)	18,191 (37.4)	△1,889
'96	36,529 (13.0)	15,325 (△6.0)	21,204 (16.6)	△5,879
'97	35,798 (△2.0)	16,864 (10.0)	18,934(△10.7)	△2,070
'98	29,101(△18.7)	18,173 (7.8)	10,928(△42.3)	7,245
'99	32,870 (13.0)	20,241 (11.4)	12,629 (15.6)	7,612
'00	39,212 (19.3)	23,424 (15.7)	15,788 (25.0)	7,636
'01	34,548(△11.9)	19,627(△16.2)	14,921 (△5.5)	4,705
'02	38,801 (12.3)	21,694 (10.5)	17,107 (14.6)	4,587
'03	44,270 (14.1)	24,887 (14.7)	19,383 (13.3)	5,505

자료 : 무역협회 KOTIS

'03년의 對EU투자도 예년에 비해 작은 편은 아니며, 향후에도 EU시장의 비중 및 EU확대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지시장 접근형 투자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03년말 현재 對EU 투자는 622건 7,660백만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별로는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독일 순이다.

〈표 III-7-17〉 한국의 對 EU 투자추이(총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99	'00	'01	'02	'03	누 계
건 수	33	51	52	54	44	624
금 액	322	180	2,200	1,088	227	7,660

자료 : 재정경제부

EU의 對韓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EU의 신아시아전략 추진에 힘입어 급증세를 보이다가 전세계적인 FDI의 감소 및 국내 대형 M&A 물량 감소라는 요인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으나, '03년의 경우 삼성아토피나 합작투자 및 동양중공업·SK전력 지분참여 등 M&A 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84.1% 증가한 결과, '03년말 현재 투자액 규모 제1위를 기록하고 있다. '03.12월 현재 EU의 對韓투자는 3,420건 27,641백만불로서 주요 투자업종은 에너지, 전자 및 전기, 통신사업, 도소매업 등이다. 국별로 살펴보면, 특히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조세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가 EU 회원국중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으며, 그 뒤를 독일, 프랑스, 영국이 따르고 있다.

〈표 III-7-18〉 EU의 對 한국 투자추이(총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99	'00	'01	'02	'03	누 계
건 수	313	377	300	264	282	3,420
금 액	6,261	4,392	2,906	1,663	3,061	27,641

자료 : 산업자원부

다. 한·EU간 통상현안

(1) 최근 한·EU 통상관계 개관

EU는 공동통상정책에 의해 제3국과의 협상권한이 집행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바, 작년 EU는 양국간 수년간 논의된 조선분쟁을 WTO분쟁절차에 회부하였고, 반도체, 철강 등의 분야에서 새로이 통상현안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통상현안은 한·EU간 전체 교역규모에 비추어 볼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조선, 반도체, 철강이 양자에게 모두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기해결이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한·EU공동위, 산업별 협의회 등 각종 협의채널을 활용,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하여 상호 노력중이다.

⑵ 분야별 통상현안

(가) 수입규제 대응

'03.12월말 현재 EU로부터 9개 품목이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으며, '03.12월 7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종료로 '02년에 비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감소하였다. 최근 EU의 수입규제 동향을 보면 반덤핑규제는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반면 DRAM 반도체에 대하여 상계관세 신규제소 1건,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에 대응한 철강세이프가드조치 확정조치 신규부과 1건 등으로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 조 선

'00.6월 한·EU간 조선합의록 체결 및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수차에 걸쳐 양국간 협의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상타결에는 실패하였다. EU집행위는 EU조선업계의 한국 조선보조금(수출신용 및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TBR(무역장벽조사) 제소에 따라 TBR('00.12-'01.5) 및 추가TBR('01.12-'02.5)을 실시한 후 '02.10.21.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패널절차('03.8.20)가 진행 중에 있다.

(다) 반도체

'02.6.10. 독일의 인피니온(Infineon)사는 한국업체의 대EU DRAM 수출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U집행위에 상계관세부과를 요청하여 '03.8월 34.8%의 확정관세가 부과되었다.

(라) 철 강

'02.3월 EU집행위는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조치 시행에 따른 제3국 잉여 철강물량의 역내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철강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시행하였으나, '03.12.6일부로 7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종료되었다.

(마) 환경과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90년대말 이후 EU의 환경정책이 원자재로부터 제품설계·생산·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각종 환경관련 지침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수출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주요 환경규제를 살펴보면 전기·전자산업에서 전기전자장비폐기물지침(WEEE),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지침, 자동차산업에서 폐차처리지침, CO_2배출규제, 기타 환경마크(Eco-label)기준 강화 등이 있다.

라. 향후 경제협력 추진방향

향후 세계경제는 EU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경제권이 3대축이 되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EU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바,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EU기업인과 교역, 투자, 물류, 금융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01.4월 한·EU 기본협력협정이 정식 발효됨으로써 지금까지 시장접근 확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EU간 경제통상관계를 한 차원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양자차원에서는 EU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통상마찰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기술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EU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나 R&D 센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또한 '01.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포함하여 WTO, ASEM 등 다자차원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러시아 등 CIS

구아협력과 사무관 고 현

가. 경제 동향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구소련연방 구성공화국 12개국으로 결성된 CIS[1]는 인구 2억8천만, GDP 5천5백억 달러, 연간수입 1,000억 달러에 이

1)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는 구소련 중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르는 지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CIS국가들은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최근 국제 고유가의 도움으로 '03년 현재 아제르바이잔(9.2%), 아르메니아(7.0%), 카자흐스탄(9.0%), 타지키스탄(6.0%) 등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CIS의 중심국가인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1억 5천만의 인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기술 등 경제발전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시장으로서, 지난 '9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푸틴 대통령 집권이후의 정치적 안정을 발판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03년 러시아는 7.3%의 경제성장률[2]을 기록하였으며, 총무역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911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도 3/4분기까지 46억 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3%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 기관들은 '04년에도 무난히 5%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교역・투자 현황

(1) 교역현황

'03년 對CIS 국가들과의 교역은 수출 25.8억불, 수입 30.2억불로서 전년대비 각각 54.5% 및 13.7%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통신기기, 합성수지, 자동차 및 부품, 편직물,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철강제품, 알루미늄, 우라늄, 어류 등 원자재 및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가 대CIS 전체교역량의 74.1%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10.6%), 카자흐스탄(6.5%), 우즈베키스탄(5.8%)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한·러 양국간 교역은 '99년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03년 對러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으로 구성

2)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 자료

55.7% 증가한 16.5억불, 수입은 13.7% 증가한 25.2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이 주로 공산품 및 소비재를 수출하는 반면 러시아는 원자재와 1차 산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III-7-19〉 한·러 교역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총교역량	3,303 (△12.6)	2,112 (△36.0)	2,227 (5.4)	2,846 (27.8)	2,867 (0.7)	3,272 (14.1)	4,180 (27.7)
수 출	1,768 (△10.1)	1,113 (△37.0)	637 (△42.8)	788 (23.7)	938 (19.0)	1,065 (13.6)	1,659 (55.7)
수 입	1,535 (△15.2)	998 (△34.9)	1,590 (59.3)	2,058 (29.4)	1,929 (△6.3)	2,217 (14.9)	2,521 (13.7)
무역수지	233	115	△953	△1,270	△991	△1,152	△862

주 :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 무역협회(KOTIS)

⑵ 투자동향

對 CIS 투자(총신고기준)는 '03년 현재 327건, 14.3억불 규모이며, 이중 러시아에 투자한 실적은 201건, 3.6억불로 주요 투자 업종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통신업 등이다. 한편, 러시아기업의 한국투자는 '03년 현재 신고기준 179건, 14백만불로 중·소규모의 무역업과 운송·창고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WTO 가입을 앞두고 러시아정부가 투자관련 법규의 정비, 인프라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경제의 활황과 자원개발사업 증가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7-20〉 對러시아 투자추이(총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98	'99	'00	'01	'02	'03	누계
건 수	7	8	12	11	10	15	201
금 액	35	3	10	21	1	7	36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향후 경제협력 전망

CIS지역은 우리 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앞으로 긴밀한 경제협력이 기대되며, 특히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주는 지리적 조건과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최근 뚜렷한 경제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CIS국가와의 교역증진 및 경제협력을 위하여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과 각종 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민간경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중동구

가.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우리나라와 중동구 국가[3]와의 교류는 '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이들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중동구 국가와의 경제교류는 우리정부가 당시 추진하던 북방정책과 맞물려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지 시장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중국 등 후발개도국시장으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교역증가세가 초기의 열의에는 못 미치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중동구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의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들 국가 중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사이프러스 등과 함께 '02.12 덴마크 코펜하겐 정상회의 결정에 의해 '04.5월부터 EU의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시장과 EU시장 진출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지역국가들과의 상호협력 확대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1) 교 역

'03년말 현재 우리의 對중동구 교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38.1% 증가한 21억불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헝가리와의 교역액이 7.5억불로 對중동구 총교역액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폴란드(4.6억불), 체코(2.6억불), 루마니아(2.4억불)가 그 뒤를 잇고 있다.

'03년말 현재 우리의 對중동구 수출은 17억불로 전년대비 46.6%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헝가리(6.6억불), 폴란드(3.8억불), 루마니아(1.7억불), 체코(1.6억불) 등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4억불로 전년대비 10.1%

3) 중동구 국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및 구유고연방국가(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합,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등을 대상으로 한다.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체코(1.1억불), 헝가리(0.9억불), 폴란드(0.7억불), 루마니아(0.7억불) 등이다.

한편, 對중동구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이며, 수입품목은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와 축산물, 농산물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구지역은 4대국인 폴란드(3,900만명), 루마니아(2,300만명), 헝가리(1,000만명), 체크(1,000만명)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경제소국으로 이루어져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1인당 GDP가 2000~5000불로 중가품이면서 비교적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상품의 진출이 유망하다 하겠다.

〈표 III-7-21〉 중동구 교역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98	'99	'00	'01	'02	'03
총교역량	2,006 (△15.6)	1,859 (△7.3)	1,510 (△18.8)	1,207 (△20.1)	1,515 (25.5)	2,092 (38.1)
수 출	1,811 (△12.5)	1,640 (△9.4)	1,154 (△29.6)	900 (△22.1)	1,160 (28.9)	1,701 (46.6)
수 입	195 (△36.1)	219 (△12.3)	356 (62.5)	307 (△13.8)	355 (15.6)	391 (10.1)
무역수지	1,616	1,421	798	593	805	1,310

주 : ( )안은 증감율(%), 자료 : 무역협회(KOTIS)

⑵ 투자동향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89년 삼성전자가 헝가리에 처녀투자한 이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98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국별 해외투자는 '03년말 총신고기준으로 폴란드에 61건 12억불, 루마니아에 8건 3.0억불, 헝가리에 29건 2.1억불, 불가리아에 6건 0.8억불 등이다. 주요투자형태는 자동차 조립공장, 가전제품 부문에 대한 현지생산 또는 판매법인의 운영이다.

〈표 III-7-22〉 對중동구 투자추이(총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98	'99	'00	'01	'02	'03	누 계
건 수	7	3	6	7	5	14	117
금 액	219	462	95	46	14	63	1,857

자료 : 수출입은행

중동구지역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민영화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해외의 선진자본 도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민영화는 우리기업의 이 지역 투자진출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대부분 민영화에 대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9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는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對중동구 교역량 증가 및 EU 확대 등으로 이곳에 대한 투자는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나. 산업협력증진 방안 및 전망

'95년 김영삼대통령의 체크 방문, '96년 이수성국무총리의 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방문, '97.5월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의 폴란드·루마니아 방문, '98.7월 김종필 총리의 폴란드 방문은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01.12월 김대중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은 중동구 국가와의 협력토대를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부가 '02. 4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합,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파견한 시장조사단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 제고 및 발칸반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02.4월 불가리아 부총리겸 경제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재개설된 소피아 무역관은 정세불안정으로 우리기업의 관심이 저조했던 발칸반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거점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차원에서는 이 지역이 기초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 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수준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사양산업에 속하는 신발, 봉제, 안경테 등의 경공업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하여 현지생산 및 판매체제를 갖추는 중소기업형 투자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3.11월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으로 탈바꿈하였고, '04.5.1일부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EU 정회원국이 된다. 특별히, EU의 통상정책, 특히 수입규제정책이 이들 신규 가입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긴요하다.

4. 중 동

구아협력과 사무관 김영만

가. 개 요

'03년 한해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및 테러 빈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긴장으로 인한 중동평화로드맵의 지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해였다. 또한 중동국가들 내부적으로도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등 내정불안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란 개혁파가 국회 선거에서 배제되어 보-혁 갈등이 심화되었고, 사우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반면 중동정세의 큰 축인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이 보여 중동지역의 정세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3.12월 리비아의 WMD 포기선언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과 이란 지진 참사 이후 미국과의 유화 분위기 등은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정세변화에 비해 경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풍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회인프라 프로젝트 구축에 나서는 것이 중동국가들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이라크 파병 등을 계기로 정치적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중동 플랜트시장에 대한 개척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중동국가들은 최근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민영화 및 비석유산업 육성 정책을 펴 나갈 것이므로 이러한 추세에 대비한 장기적인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중동과의 교역구조는 중동의 자원을 공급받는 대신 중동지역에 사회 간접자본의 건설, 산업설비의 수출, 양질의 공산품을 공급하는 등 상호 보

완적 구조로 요약될 수 있으며 우리측의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이다.

교역규모는 '00년까지는 원유 등의 수입 증가로 교역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01년 이후 원유, LPG 등의 수입감소로 2년 연속 줄어들면서 '02년에는 전년대비 7.0% 감소한 284억불에 그쳤다. 그러나 '03년에는 수출호조와 국내경기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전체 교역은 '02년 대비 25.1%나 늘어난 355억불을 기록하였다. 對중동 수입의 경우 에너지 수입증가와 고유가로 인해 29%나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이라크 전쟁 이후 요르단과 두바이를 거쳐 간접적으로 이라크에 들어가는 수출량이 전체 對이라크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對중동 플랜트수출의 경우 개념상의 중동인 북아프리카를 포함할 경우 '03년 전체 플랜트 수주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최대의 플랜트 시장이며 '03년 기준으로 원유 및 유화제품의 약 78%, 장기 LNG 물량의 약 46%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활발한 교역에도 불구하고, 대중동 투자 진출은 '03년말 현재 183건, 18억7천만불(북아프리카 포함)로 우리나라 전체 958백만불(신고액 기준)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바, 이는 중동국가의 불안한 정세, 투자여건 미비,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가 그 주원인이다.

〈표 III-7-23〉 대 중동 교역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98	'99	'00	'01	'02	'03
총교역량	18,003 (△19.6)	21,094 (17.2)	33,379 (58.2)	30,525 (△8.6)	28,380 (△7.0)	35,521 (25.1)
수 출	6,586 (29.0)	6,398 (△2.8)	7,586 (18.6)	7,138 (△5.9)	7,499 (5.0)	8,592 (14.6)
수 입	11,417 (△33.9)	14,696 (28.7)	25,793 (75.5)	23,387 (△9.3)	20,881 (△10.7)	26,929 (29.0)
무역수지	△4,831	△8,298	△18,027	△16,249	△13,382	△18,337

주 :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 무역협회(KOTIS)

다. 중동과의 경제협력 증진 및 시장진출 확대

한국과 중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자국의 비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을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중동국가에게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면접촉을 선호하는 중동지역의 문화를 고려하여 중동지역 주요 산업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향후 대중동 진출을 위한 인맥을 확보하는 "한-중동 산업협력사업"을 '03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중동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 사업을 통해 13명의 중동지역 공무원 및 국영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듣고 주요산업현장 시찰과 문화체험을 하였다. 또한 그간 등한시되어온 중동지역의 이슬람 문화 이해 및 아랍어 사용을 통해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IT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유망 기업과 유망상품을 홍보하는 아랍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對중동 플랜트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최근 재정적자와 실업률을 줄이

고, 기술이전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프로젝트 발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플랜트 관계자들이 모여 대중동 플랜트수주증대를 위한 전략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기적인 플랜트수주 방안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중동국가는 아직도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고위급 인사의 중동 방문과 중동지역 유력인사의 방한초청, 정부간 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통상협력 채널을 정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요한 에너지 수입원이자 플랜트 수출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에너지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동지역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보다 전향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라. 진출상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중동지역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은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하나로 기업의 진출시 국가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앞서 말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BOT의 경우 중동국가들의 정세나 투자관련 규정들이 미비하여 아직 한국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의해 교역량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까다로운 수출입절차, 자국인력 의무고용정책, 현지화규정, 정부통제로 인한 민간경제 활동의 제약 등으로 시장진출 확대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국내에서 중동지역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기업은 그간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과 에너지 안보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중동관련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인색했

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테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선입관이 상존하여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동에게 있어 원유 및 가스자원의 주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원유 및 유화제품의 약 10%이상을 한국이 구매)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 능력은 미약하며 대중동 외교관계도 대미관계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원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은 앞으로도 우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산업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현재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따라서 일회성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중동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동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하고, 이라크 파병 등을 계기로 중동지역에 대한 정치적 우호관계를 다져 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동지역 투자진출을 늘려 이를 에너지 도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중동지역 플랜트 및 공산품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출입 금융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아프리카

구아협력과 주무관 권현기

가. 개 요

아프리카는 지구 육지면적의 1/5을 차지하는 대륙으로, '03년 현재 약 8억 6천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53개 독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총인구가 10만명에 불과한 세이쉘에서부터 1억 3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또한 1인당 GDP면에서도 9,000여불에 이르는 세이쉘에서부터 95불에 불과한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경제집중도가 워낙 커서 7대 경제강국(남아공,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들이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38%, 전체 GDP의 69%, 무역고 68%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7-24〉 아프리카 7대 경제국 주요지표('03년기준)

국 가	인 구		교 역(억불)*				GDP	
	백만명	비중(%)	수출	수입	교역	비중(%)	억불	비중(%)
남아공	44.0	5.1	299	293	592	20.3	1,580	24.7
이집트	72.1	8.4	70	196	265	9.1	793	12.4
알제리	31.7	3.7	185	118	303	10.4	645	10.1
나이지리아	133.9	15.6	170	124	294	10.1	465	7.3
모로코	30.4	3.5	83	134	216	7.4	445	7.0
튀니지	9.9	1.1	68	95	163	5.6	258	4.0
리비아	5.5	0.6	99	54	153	5.2	214	3.3
7개국 계	327.5	38.0	973	1,015	1,988	68.1	4,399	68.7
아프리카계	861.0	100	1,397	1,521	2,918	100	6,400	100

주 : 교역은 2002년 기준임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IMF

아프리카경제는 '96년이후 평균 3.6%의 지속성장, 경제자유화 조치 단행, IBRD와 IMF 등의 SOC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00.10월발효) 입법화,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GOA법과 EU의 준회원국협정('95.7월 튀니지, '96.2월 모로코, '01.6월 이집트, '02.4월 알제리)은 아프리카가 선진국들의 교역·투자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고 경제·통상관계를 증진해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는 향후 우리의 잠재적 시장으로서 중국 등 경쟁국 상품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진출전략이 시급한 곳이기도 하다.

나. 교역 및 투자현황

우리의 對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수출의 경우 '03년말 현재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증가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 42억불, 수입은 금은동 등 광물류의 수입증가로 16.0% 증가한 23억불, 총 교역액은 9.8% 증가한 67억불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류 등 공산품이며, 수입은 원유, 금은동, 알미늄, 철 등의 원자재 및 커피 등의 기호 식품이다. 특히 '03년의 경우 콩고, 앙골라, 가봉, 수단,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으로부터의 원유(9억불), LPG(2억불), 나프타(1.6억불), LNG(0.5억불) 등 에너지자원 수입규모가 對아프리카 총수입의 56.5%를 차지하였다. 이는 향후 이라크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지역과의 전략적 차원의 자원협력채널 구축 필요성 및 그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가는 편이치적선 수출국인 라이베리아를 제외하면, 나이지리아(6.0억불), 남아공(5.3억불), 이집트(4.3억불), 알제리(2.3억불), 리비아(1.4억불) 등의 순이며, 수입의 경우 남아공(7.8억불), 콩고(3.7억불), 앙골라(2.7억불), 이집트(2.0억불), 알제리(1.9억불) 등의 순이다.

'03년말 현재 對아프리카 투자는 총투자 기준으로 143건에 7.5억불로 알제리(3건, 2억불), 수단(7건, 1.5억불), 이집트(12건, 1.2억불), 남아공(23건, 0.8억불), 모로코(17건, 0.5억불) 등의 순이며, 전체 해외투자의 1.7%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아프리카의 시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아프리카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SOC, 석유·가스전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아프리카는 중동에 이어 우리 업체의 플랜트 수주 2위 지역으로서 향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7-25〉 2003년 플랜트 수주 현황

(단위:백만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유럽	북미	중남미	계
1,917	1,584	818	774	767	458	47	6,365

자료 : 플랜트산업협회

다. 진출상 문제점

아프리카 진출에는 몇 가지 시장특성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남아메리카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째, 아프리카의 총무역고는 2002년 2,918억불로 우리나라 3,146억불보다 적고 아프리카 34개국이 최빈 개도국으로서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셋째, 정치적 불안정 및 치안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크며, 넷째, 교통, 항만, 통신 등 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U-북아프리카국가간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아프리카 7대 경제국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는 아프리카 총무역고의 32.5%, 총GDP의 33.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수출의 19.0%, 투자의 51.8%를 차지하는 국가들로서 EU와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준회원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즉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이 EU 상품과 경

합관계에 있어, 관세율 차이에 의한 가격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북아프리카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준회원국 협정 체결이 EU 상품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거나, 둘째,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셋째, 이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3년 EU-칠레간 FTA 발효로 인해 칠레 시장에서의 우리 자동차와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EU의 역외 국가와의 FTA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EU의 동향을 보아가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시장진출 확대방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실질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불확실한 아프리카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및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한 현지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부 및 KOTRA등 준정부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 둘째, 무역·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재원의 부족은 원활한 수입 및 발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수출 또는 수주자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의 유무가 진출확대에 최대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금이나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에의 가입과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부차적인 위험분산 장치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 여건, 시장성 및 성장성 등을 분석,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플랜트 발주국,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인 남아공, 중동·아프리카·유럽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아프리카 및 동부아프리카 무역의

관문인 케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국가의 내수시장 공략과 인근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3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EU와 준회원국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놓고 있어 마그레브지역을 통한 EU시장 접근이 한층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